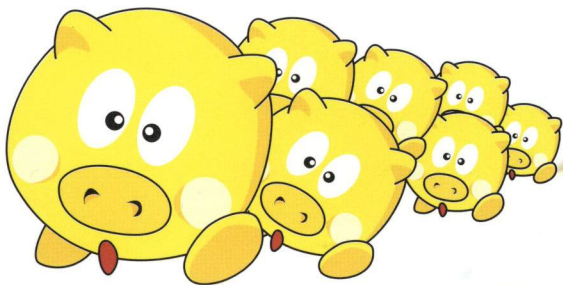


# '새 정치'를 실천하는 부산시민 후원회 희망돼지 모으는 날

일시: 2002년 12월 6일 (금) 저녁 7시 / 장소: 구덕실내체육관

주최: 새천년민주당 부산시지부 후원회 (051- 468-2000, 468-2483)

여러분이 들고 오신 희망돼지 저금통이 새 정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아 주신 정성어린 희망돼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구시대의 낡은 정치가 계속되느냐, 새 시대의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느냐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이번 선거로 결정될 것입니다. '희망돼지' 라는 깨끗한 개미들의 후원금으로 새로운 정치자금 모금방식을 시민들의 참여속에 진행해 왔습니다.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성어린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새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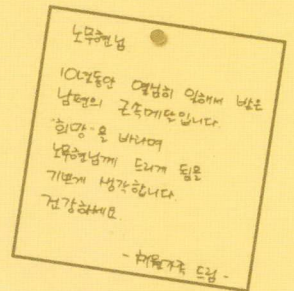
작은 정성이 모여 역사를 바꾸는 큰 변화의 물결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12. 6.

## 희망돼지는 21세기의 정치후원방식입니다

우리는 희망돼지로 이름지어진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후원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10년동안 근속하여 받은 금메달을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희망돼지와 함께 소액후원도 늘어 오늘 50여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후원을 경이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후원방법을 택하였겠습니까. 그건 그동안 '돈' 바꾸어 말하면 정치자금이 우리 정치를 썩게 만들고 정치인들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이 부정하게 돈을 모으고 선거때마다 거액의 돈을 뿌리는 모습에 질렸습니다. 그런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울가미가 달려 있습니다. 재벌에게 돈을 받으면 재벌 정치를 하게 되고, 부패한 돈을 받게 되면 부패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밀실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정치인이 검은 돈을 받는 것을 없애고자 합니다. 작지만 다수 국민의 정성이 담긴 돈으로 국민의 바램을 후보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자 합니다. 출발이 깨끗하면 끝도 깨끗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하면 희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 새로운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래 전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4강에 들어 세계가 깜짝 놀란 지금, 정치판만 20세기 낡은 정치에 몸담고 있어선 안됩니다. 돈을 물 쓰듯 하는 낡은 정치, 공작정치, 터무니 없는 비방정치, 생산적인 정책대결을 벌이지 못하고 지역에 기대는 지역주의 정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는 우리 정치사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권위주의 정치 사라져야 합니다. 1인정당과 제왕적 정당통치는 3김 정치의 나쁜 악습입니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 정치는 이제 무덤에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치들을 짜지 못하면, 더 이상 정치가 발전하는 사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우리 나라는 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하고 말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고자 합니다. 동서화합과 남북번영의 길, 따뜻한 사회, 이는 새로운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부산의 선택, 젊은 대통령, 젊은 대한민국

# 희망대지를 받는 후보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희망대지를 받는 후보에게 엄중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낡은 정치를 부수고 새 정치를 이끌어갈 책임, 측근, 가신, 계보정치를 없앨 책임, 정치개혁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책임,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책임, 평등하고 자주적인 외교,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한 정치를 요구합니다.

어느 시민이 희망대지를 후보에게 드리면서 “꼭바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희망대지를 받는 후보가 이러한 새 정치를 꼭바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치 현실을 냉소적으로 비판만 하지 않고 이러한 새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후보가

이러한 새 정치를 못 해내거나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미적거리면 주저없이

희망대지가 가진 의미를 현실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비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는 청운의 뜻을 하늘에 제사를 지내 고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대지로 하늘에 고합니다. 낡은 정치를 없애고, 새 정치로 가겠습니다.

번영하고 평화스런 동북아 시대로 가겠습니다.

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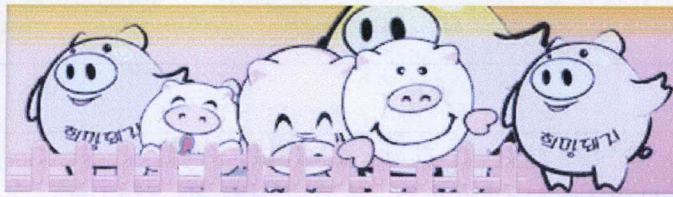
## 후원해 주십시오

- ARS결제  
전화 : 060-7000-337(1만원 결제)
- 후원계좌번호  
102701-04-011532 (국민은행)  
030-12-070320-9 (부산은행)  
178275-51-033209 (농협)  
예금주 / 최도술(민주당부산시지부 후원회)

개인 또는 법인이 후원하신 정치자금은 영수증 처리되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www.knowhow.or.kr](http://www.knowhow.or.kr)에 접속  
검색창에 노무현을 한글로 쳐도 됨.





정정당당 노무현,  
처음사랑 끝까지  
- 돼지 한 마리로 세상을 바꿉시다 -

노무현과 '희망돼지'

김석수 기자 pwkss@hanmail.net

민주당 분열로 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노무현 후보측이 개미군단에 의한 선거자금모음을 위해 '희망돼지'를 분양하고 있어 정가에 신선한 화제를 던지고 있다.

노 후보 선대본부에서 전국의 지지자들에게 20만개의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고 동전이 담긴 그 돼지저금통을 수거해 50억원의 선거자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35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한도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소액다수에 의한 선거자금모음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사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돈과 관계되어 있다. 정치자금만 투명하게 조달되고 사용되는 것이 제대로만 확인된다면 우리 정치 문제의 80~90% 이상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지고 보면 1인보스정치가 가능한 것도 실력자가 공천권과 함께 정치자금을 모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된 처지지만 권노갑 전 의원도 개혁정치인이라 불리우는 김근태 의원마저 돈으로 사려 한 것은 김근태 의원의 고백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지역주의가 가능한 것도 모두 부정한 돈과 연관되어 있다. 3김식 지역주의는 일정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동원된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를 강화해야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은 다시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물질적 토대가 되는 악순환의 시스템에서 돈은 그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부정한 돈은 부정부패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부정한 돈은 부당한 이권과 압력으로 연결되고, 그 이권을 만들기 위한 투자자들의 정치권 투자는 또 다른 부정한 이윤을 낳는 온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권력이 비합리적인 생산시스템, 즉 불투명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래서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낳고, 그 문제점은 외환위기나 외채위기 등으로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난다.

따라서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점이 정치개혁이란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김영삼 정부에서 보았듯이 최고권력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재산공개를 해서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재산공개를 유도 하였고, 금융실명제 등으로 이 투명한 시스템을 공고히 한 바 있다.

또한 95년의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민자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거의 돈을 쓰지 않은 선거로서 민자당의 선거참패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돈 쓰지 않는 선거지침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최고권력자에 의한 출선수범은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조달하고 선거자금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시작만 하고 후속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않아 김영삼 정부의 정치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IMF외환위기로 이어진 바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개인의 당시 노력을 애써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노무현 후보가 선거 전부터 소액다수에 의한 선거모금을 시작한 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또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문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노 후보의 '희망돼지'가 여타 후보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쳐 투명하고 돈 적게 쓰는 선거문화를 경쟁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희망돼지사건'을 통해 정치자금 투명화와 정치개혁을 달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 관건이 있다.

그 하나는 노 후보측의 변함없는 의지다. 김영삼 정부도 야심찬 정치자금 투명화작업을 시도했지만 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돈 안쓰는 선거를 포기하고만 전례가 있다. 정치판의 장사꾼이랄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 투자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선거라는 장사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의식이 있는 한, 모처럼의 다짐은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따라서 노 후보측이 이번 희망돼지 캠페인을 시발로 지속적인 정치자금개혁프로그램을 내놓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현금추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의 개정과 금융실명제의 대폭 보강에 나설 필요가 있고, 또 정치자금법상 소액다수모금을 강화하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 후보측이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의 각종 선거에서도 범규정을 넘어선 선거자금을 어떠한 형태로든지간에 쓰지 않는다는 실천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노 후보 스스로도 밝혔듯이 노 후보가 뭉터기돈을 얻어다 쓸 구석이 별로 없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허언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정치자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관건은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다. 사실 언론이 돈 안드는 정치문화를 선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문제다. 언론이 각 정치세력이 견고, 쓰는 돈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망을 구축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벌인다면 이를 배겨낼 정치세력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무는 그만큼 막중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희망돼지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자세는 아직도 '단신' 수준의 전근대적 정치행태들을 상단기사나 주요기사로 취급하는 반면 정치개혁과 관련한 '톱뉴스'급인 희망돼지건을 단신보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요원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 정책중심의 비교보도관행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도 특정언론에 대한 총괄적 반대운동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희망돼지건과 같이 정치개혁에 긍정적인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보도관행을 압박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동시에 벌여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노 후보측이 선을 보이고 있는 소액다수모금제 방식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란 공동인식 아래,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선의의 경쟁력을 갖는 정치인이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익을 누리면

서, 동시에 이같은 흐름에 주춤거리는 정치세력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관행을 지금부터라도 확립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대통령선거라는 국면에서 노 후보측이 자신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내놓는 상품이긴 하지만, 정치인이 질 좋고 값싼 상품을 내놓는다면 소비자인 국민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므로 '희망돼지'는 두손들어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한 경쟁에서 노무현 후보측이 한발 앞서 나간다는 점은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며, 아울러 노 후보의 희망돼지운동이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2/10/08 오전 11:43

© 2002 OhmyNews

#### < 취 지 >

전국 각지에 '희망돼지'를 배포/수거하는 거점을 확보해 전국민적인 희망돼지 붐 조성을 위하여 '희망돼지 우리점'을 모집합니다.

#### < 방 법 >

약국, 세탁소, 미장원, PC방, 슈퍼마켓 등 일반 국민들이 자주 찾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들에게 '희망돼지 우리점' 자격을 주고 '희망돼지' 배포/수거의 책임을 부여함.

#### < 자격 부여 >

국민참여운동본부차원에서 '희망돼지 우리점'으로 공식 등록 후 점포부착용 인쇄물(8절크기) 및 인정서 증정.

#### < 추진 주체 >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02-784-1279)

#### < 시작 시점 >

10월 28일부터 추진(점포부착용 인쇄물 배포)

#### < 목표 점포수 >

10만 점포(전국)

#### < 신청 방식 >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으로 지역별 책임자가 적정수량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이번 선거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 금새 아시겠지요^^

노사모 조직, 개혁당 조직, 우호적인 단체, 당조직 등을 활용합니다.

당장 노사모 자영업하시는 분부터 나서시고....

지역별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장이 지역별 목표량을 정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희망돼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는 돈 안쓰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기업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하는 대통령, 빌려 쓴 검은 돈 때문에 눈치보는 대통령은 안됩니다. 이제 국민에게 빚을 진 대통령,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을 만듭시다.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에서는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세상을 희망하는 우리의 뜻을 담아 '희망 돼지'(돼지저금통)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빚을 지웁시다.

보통사람들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눈 팔지 못하게 만듭시다.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힘, 희망돼지(돼지저금통)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인터넷 엽서,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 1. 희망돼지는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희망돼지우리점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희망돼지사업이 초기에 사전선거운동방지방에 저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희망돼지의 분양과정에 특정후보의 지지지원을 호소하는 홍보물이나 홍보발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도 희망돼지 그 자체의 유효성(소액다수로 부터 정치자금을 모아들이는것은 정치자금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어 권장할 만한 일이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희망돼지 자체는 선거법의 저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관련하여 선관위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에는 국민참여운동본부 100만 서포터즈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되, 선관위의 제지가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민참여운동본부 기획실 법률팀장 손정주

T)02-784-1219

#### 2. 희망돼지를 어떻게 받나..?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 본점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 3. 희망돼지 관리는 어떻게..?

희망돼지를 분양을 할 때 분양용 스티커(사육일지)의 기초정보를 적어 희망돼지에 붙이시고, 동시에 작성된 보관용 스티커(분양정보)는 점주가 보관하시었다가 본점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 4. 희망돼지 수거는 언제 어떻게..?

희망돼지 수거는 매주 목요일에 하시되 각 점포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 5. 희망돼지를 수거할 때 수거방법은?

희망돼지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사육자의 정보가 적혀있는지 확인 하시고, 돼지우리점 인증서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여 드린후 감사히 수령하시면됩니다. 사진기가 없으신 우리점은 후레쉬가 달린 1회용 카메라를 이용하시고, 현상인화까지의 소요경비는 각 지역별 본점에서 정산해 드립니다.



6. 희망돼지는 수거 후 어디로..?

희망돼지 우리점에서 수거한 희망돼지는 금요일에 각 본점에서 마릿수를 체크하여 수거를 하며 마릿수 체크 증서(양식 별첨)를 드립니다. 본점에 모여진 희망돼지는 본점의 마릿수기록과 함께 토요일에 100만 서포터즈사업단으로 보내어 집니다.

7. 사업단으로 도착한 희망돼지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단으로 도착한 희망돼지에 적혀있는 정보가 100만 서포터즈 사업단 홈페이지에 등재되며, 마릿수와 금액의 누계에 포함되어 공개 됩니다. 비워진 희망돼지는 깨끗한 선거자금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재료가 되어 영구보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 희망돼지 인증서, 명함, 가이드 북은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희망돼지 인증서, 명함, 가이드 북은 당원용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선거법과 관련 문의 사항은 국민참여운동본부

- 부산 희망돼지 현황 -

분양 : 총 25만마리 제작 - 20만마리 분양

희망돼지 우리점 : 전국 1200여개 부산시내 각 지역에 70여개 지점

희망돼지 수거현황 : 부산 1,2차 수거에서 3000여개 수거하여 후원.

12월6일 부산민주당 시후원회 - 5000여개 수거하여 후원.